

## 최소공비점을 갖는 액체혼합물 (Minimum-boiling azeotropic mixture) 에서 인화점 변동 특성 분석

김주석<sup>1,2</sup>, 박재득<sup>2</sup>, 문 일<sup>2,\*</sup>

<sup>1</sup>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; <sup>2</sup>연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 
(ilmoon@yonsei.ac.kr\*)

산업 및 실생활에서 판매.유통. 사용되고 있는 실제 많은 화학물질들은 단일 물질인 경우 보다 주로 혼합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MSDS가 확보되지 않아 그 위험성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, 정확한 범규의 적용을 위해서는 세부 고찰이 필요함.

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의 적용은 주로 물질의 인화점으로 분류하며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 대비 물질의 여부는 지정 성분의 함량으로 분류함.

혼합물의 경우 각 물질의 분자 구조에 따라 조성별로 상이하게 거동할 수 있으므로 혼합비만으로 인화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험성 정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.